

# 秋風感別曲



## [해제]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은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는 조선시대 고소설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에 삽입된 가사(歌辭)이다. 고소설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평양성(平壤城) 김진사의 딸 채봉(彩鳳)은 후원으로 봉나들이를 나온다. 그 모습에 반한 전 선천부사(宣川府使)의 아들 장필성(張弼成)은 그녀가 떨어뜨린 손수건에 사랑하는 시를 써서 보내고 채봉도 화답시를 보내면서 마침내 둘은 약혼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벼슬에 눈이 어두운 채봉의 아버지 김진사는 딸을 허 판사의 첩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는다.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을 나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 판사가 김진사를 하옥시키자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고자 송이(松伊)라는 기생이 된다. 서로 주고받은 시를 확인한 채봉과 필성은 다시 만나게 되지만 평양감사 이보국(李輔國)이 채봉을 탐내어 데려가자 둘은 다시 이별을 한다. 필성은 자진하여 감사의 이방으로 변신한다. 채봉은 밤마다 필성을 그리며 <추풍감별곡>을 읊는데 이 사연을 듣게 된 감사는 채봉을 놓아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신분을 뛰어넘는 파란 많은 사랑의 과정을 통해 당시 불합리한 사회 질서와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확한 표현법과 독창적인 구성으로 인해 고소설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삽입된 채봉의 노래 <추풍감별곡>은 일명 <감별곡(感別曲)>이라 하여 서도소리로 개작하여 불렀다. 조선 말기에 유행했던 이 가사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주제로 한 절창으로 평가 받아 규방에서 아녀자들 사이에 대단히 유행했다. 따라서 필사본이 많은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의 의도와 심사에 따라 원전과 다르게 필사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종종 발견된다. 이 필사본은 필사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보관 과정에서 제목과 앞부분이 찢겨 나갔다. 18.5×385cm의 두루마리 한자에다 1행에 4음보 2구를 종서(縱書)하여 모두 280행으로 기록하고 콩기름을 먹였다.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원전과는 다르게 표기된 부분도 있다. 원전에는 없는 결사(結辭)를 첨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사(歌辭) 문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 [원문]

천연 강산이 찬기운이 새로워라  
 심사도 창연한대 물색도 유감하다  
 정뉴의 부난바람 이한을 아뢰난듯  
 추국의 잊친이실 별루이 먹은음듯  
 잔유 남교의 춘잉이 의지하고  
 소월 동정의 춘원이 슬피운다  
 님여희고 썩은간장 허마하면 쓴칠이라  
 삼춘의 즐기든일 예런가 꿈이런가  
 세우사창 요적헌대 훌훌히 깊은정과  
 야월삼경 사어시의 익연살자 구든언약  
 단봉이 놉고놈하 패슈가 김고김허  
 문어지기 이의어든 쓴쳐질줄 짐작허랴  
 양신의 다마함은 예로부터 잇건만난  
 지리 인함은 조물의 타시로다  
 출연이 이난추풍 화총을 요동하니  
 운봉 자점이 외연히 훗단말가  
 진창이 감춘호구 도적할 길 바이없고

금룡의 잠긴앵무 다시 회동 어려워라  
 지척동서 철이되어 바라보기 막연하다  
 은하작교 쓴첫쓰니 건너갈길 아득하다  
 인정이 쓴첫스며 차라리 잊치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익양이서  
 못보아 병이되고 못이져 원수로다  
 천수만한 가득흔대 곳곳이 늑거워라  
 흐물며 이난츄풍 별히를 못쳐내니  
 눈압히 온가거시 전혀다 시름이라  
 바람압히 지난입가 풀속의 우난증생  
 무심이 듯기되니 관계할바 업건마는  
 유유별한 간절흔대 소레소레 수성이라  
 아회야 술부어라 횡연아 관회출가  
 잔갓쳐 갓득부어 취토록 먹은후의  
 석양 적노의 을미대 올라가니  
 풍광은 예와달아 만물이 소연하다  
 능나도 식한버들 성긴가지 소슬하고  
 금수봉 솟진낭기 상엽이 표불하고  
 인정이 변화함은 축양후야 이른것가  
 익연이 눈을드러 <원근을 바라보니>  
 용산의 느진경은 창울함이 심스갓고  
 마탄의 너른물은 탁양함이 회포갓다  
 보통문 송객정은 이별앗겨 서러마라  
 세상이별 남여중에 날갓트니 또잇난가  
 슈례문의 보난빛난 횡하난되는 어대익나  
 만단솔히 시른후의 철이약수 건너가서  
 우리님 계신곳의 수이수이 풀고지고  
 성우의 느진경은 견대여 못보리라  
 금탄 단우로 의관을 지어드러  
 바람결이 우난 증생 문노니 어대절고  
 <초혜를 떨쳐신고> 석거이 이러거러  
 영명사 차자가서 중다려 못난말이  
 인간이별 내신 부쳐 어대탑상 안잔난고  
 이화 별슈로 이갓튼 별수로다  
 언지나 구름거더 발근빛 다시볼고  
 송지문의 명화편을 길이흠퍼 비회하니  
 할로 상풍의 취한 술 다씩엇고  
 금준을 다시열고 낙엽을 깔고안자

일비일비 부일비난 몽롱의 취키먹고  
 저른탄식 긴한숨의 발을 미러 이러서서  
 지향업시 가는길의 이연당 드란말가  
 부용을 꺾거들고 유정이 도라보니  
 슈변의 피난꽃은 님여나을 반기난듯  
 엽간의 쓰난빅난 님사정 알리난듯  
 양양 빅구는 중요의 왕내하고  
 쌍쌍 원앙은 녹슈의 부침이다  
 이인칭 가련하다 미물만 못하도록  
 호련이 다떨치고 빅마을 치을던저  
 산이야 구름이야 정처없시 가자하니  
 님말이 허왕하야 같길이 아득하다  
 허희 탄식하고 차래로 도라드러  
 간곳마다 보난물색 이대도록 심난하다  
 울미틱 피난국화 담안의 불근단풍  
 님과함께 보랑이면 경기롭다 하련마는  
 도도심사 울울하야 도리혀 수심이라  
 무정세월 여류하야 나날이 깊허간다  
 가기난 절을차자 구추을 느껴서라  
 상허릭 우난실술 너난무삼 나을미워  
 지난달 지난밤에 잠시도 쓴치안고  
 긴소리 저른소리 경경이 슬피우러  
 다씩고 남은간장 어이마자 썩이난고  
 영계가 더디우니 밤조차 깊어서라  
 상풍의 놀란홍안 운소의 흘로서서  
 웅웅한 긴소리로 짝을불러 슬피우니  
 추풍효월 저문날의 두견성도 늑기거든  
 오동추야 단장시의 차마어이 드릴손가  
 니아모리 미물이나 사정은 날과갓다  
 일폭 화전지에 세세사정 그려니여  
 명월사창 요적헌디 님계신곳 전하려면  
 지리한 이이별이 생각사록 솟치없다  
 인연업서 못보난가 유정하야 그리난가  
 인연도 없지안코 유정도 하건마난  
 일성중의 흥깨잇셔 어이그리 못보난고  
 상슈명월 발근 달의 초산운우 섬길적의  
 설진신중 무한사난 황연한숨이 이로도다  
 무진장회 강잉하야 문을열고 바라보니

무심한 뜬구름은 쓴젖다 다시이며  
우리님 계신곳의 저구름 아련마는  
오민가민 두사이의 무삼약슈 막혀난디  
양처가 막막하야 소식조차 쓴탄말가  
돌던었던 이내심사 어딤다시 지점홀가  
벽상의 걸린시름 강임하야 내려노코  
봉구황 훈곡조난 훈숨씩거 가려타니  
여음이 요조하야 원하난듯 하난듯  
상하의 옛곡조난 으연히 잇다마는  
탁문의 마른지음 호호이 자취업니  
상사곡 세글자난 날이하야 지인난가  
결연하니 이별이 늑길일도 하도만다  
창희월 영두운은 님계신듯 빗치건만  
심중소리 안전슈난 나흔자 뿐이로다  
갈수록 심난한 디 하난어이 슈이갈가  
잘새난 기은조차 물이물이 풀고들고  
야색은 창망하야 만단기 히미하다  
적막흔 빈방안의 울적이 홀로안자  
지난일 다물치고 오난시름 생각하니  
산뱃게 산이잇고 물박게 대히로다  
구이산 구름갓치 바라보기 묘연하다  
장장츄야 긴긴밤의 이리하야 어딤하고  
아모쪼록 잠을드러 꿈의나 보자하니  
원앙침 서리치고 비치금 냉낙하다  
효월 잔등의 꿈이루기 어려워라  
일변장축 빛을삼아 전전불매 잠을드러  
금각연 새벽달의 오경인줄 미달았다  
이리하고 저리하니 아마도 원수로다  
고진감내난 꼭 잇건마는  
명천이 도우시고 지신이 유익하야  
남교의 굿신폴노 월노승 다시이며  
쇼상강 어느날의 고인을 다시만나  
봄바람 가을달의 그림갓치 마조안자  
이런일 옛말 삼아 정회중의 여러두고  
유자 생여하여 한업시 즐기다가  
일생이 교자하야 어딤누가 시비커든  
츄풍오호 저문날의 금범을 놓히달고  
가다가 안잤다가 산조코 물조은대

자좌우향 제법을 수간초옥 지은후의  
석전을 김히갈고 초목을 먹을망정  
씩년이 다진토록 떠나자 마자더니  
상사로 언한몸이 상우의 잠간 누어  
죽은듯이 잠을드러 호접이 나를 물라  
그린듯 우리님을 꿈가운디 잠간 만나  
비회가 교집혀야 별회 사정 담조혀  
수가 옥적성이 추풍이 썩여불너  
처량한 그소리로 잠든날을 깨우난가  
두어라 이한별슈난 후일다시 불가하노리

[현대역]

<어제 밤 바람소리 금성(金聲)1이 완연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2에 상사몽(相思夢)3 훑쳐4 깨어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하고 막막하게 앉았으니  
 만리 장공(長空)에 하운(夏雲)이 흩어지고>5  
 천 년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심사(心思)도 창연(愴然)6한대 물색(物色)도 유감(有感)7하다.  
 정수(庭樹)8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9을 아뢰는 듯,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10를 머금은 듯,  
 잔유남교(殘柳南郊)11에 춘앵(春鶯)12이 이귀(已歸)13하고,  
 소월동정(素月洞庭)14에 추원(秋猿)15이 슬피 운다.  
 임 여의고 썩은 간장(肝腸) 하마터면 끊어지리.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16런가 꿈이런가?  
 세우(細雨) 사창(紗窓)17 요적(寥寂)18한대 흠흠(洽洽)히19 깊은 정(情)과  
 야월삼경(夜月三更) 사어시(私語時)20에 백년 살자 굳은 언약(言約).  
 단봉(丹峰)21이 높고 높아, 패수(溟水)22가 깊고 깊어  
 문어지기 이의(異意)23거든 끊어질 줄 짐작하라.  
 양신(良辰)24에 다마(多磨)25함은 옛날부터 있건마는  
 지이인하(地邇人遐)26는 조물(造物)의 탓이로다.  
 훌연히 이는 추풍(秋風) 화총(花叢)27을 요동(搖動)하니,  
 웅봉(雄蜂)28 자접(雌蝶)29이 애연(哀然)히 흩어진단 말인가?  
 진장(秦帳)30에 감춘 호구(狐裘)31 도적(盜賊)할 길 바이없고,32  
 금룡(禁籠)33에 잠긴 앵무(鸚鵡) 다시 희롱(戲弄) 어려워라.  
 지척(咫尺) 동서(東西) 천 리 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34하다.  
 은하(銀河) 작교(鵲橋)35 끊겼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인정(人情)이 그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姿態) 거동(舉動) 이목(耳目)에 매양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怨讐)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36 가득한대 끝끝이 느껴워라.37  
 하물며 이는 추풍(秋風) 별회(別懷)38를 묻혀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온전히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이 듣게 되니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悠悠) 별한(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39이라.  
 아희야 술 부어라. 행어나 관회(寬懷)40할까.  
 잔 갖추어 가득 부어 취하도록 먹은 후에  
 석양 적로(滴露)41에 을밀대(乙密臺)42 올라가니  
 풍광(風光)은 예43와 달라 만물이 소연(蕭然)44하다.

능라도(綾羅島)45 쇠(衰)46한 버들 성긴47 가지 소슬하고,  
 금수봉(錦繡峰)48 끊어진 나무 상엽(霜葉)49이 표불(漂拂)50하고,  
 인정이 변화함은 측량하여 말하는 것인가.  
 애련(哀憐)히 눈을 들어 <원근(遠近)을 바라보니>  
 용산(龍山)51에 늦은 경치는 창울(悵鬱)52함이 심사(心思) 같고,  
 마탄(馬灘)53의 넓은 물은 탕양(蕩漾)54함이 회포(懷抱) 같다.  
 보통문(普通門) 송객정(送客亭)55은 이별 아까워 서러워마라.  
 <초패왕의 장한 뜻도 죽기로 이별이 서러워  
 옥장(玉帳) 비가(悲歌) 높이 불러 눈물을 지었으나  
 오강(烏江) 풍우(風雨) 이별에도 울었던 말은 못 들었네.  
 천지는 몇몇 해며 이별은 누구누구? >56  
 세상 이별 남겨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수로문(水路門)에 보이는 배는 행하는 곳 어디냐?  
 만단(萬端) 술회(述懷) 실은 후의 천 리 약수(弱水)57 건너가서  
 우리 님 계신 곳에 수이수이58 풀고지고59  
 성(城) 위에 늦은 경(景)은 견디고는 못 보리라.  
 금란(金欄)60 단우(丹愚)61로 의관(衣冠)을 지어들이고 <싶구나>.  
 바람결에 우는 종경(鐘磬)62 묻노니 어디 절인고?  
 <초혜(草鞋)63를 떨쳐 신고> 석거이64 일어나 걸어서  
 영명사(永明寺)65 찾아가서 중에게 묻는 말이  
 인간 이별 내신 부처 어느 탑에 안자 계신고?  
 <님 그린 일편단심(一片丹心) 불전(佛前)에 발원하여  
 님은 다시 못 볼망정 차라리 죽어져서  
 백골(白骨)은 진토(塵土)되나 영혼은 높이 날아  
 임 앉으신 난간 앞에 이루어 보리로다.  
 다시금 생각하니 이 도한 원수로다  
 죽창을 고쳐 짚고 부벽루(浮壁樓)66 올라보니  
 들 밖의 점점봉은 구름 속에 솟아 있고,  
 청강(淸江)에 흐르는 물 추천(秋天)과 한 빛이라.  
 이윽고 뜨는 명월(明月) 교교(皎皎)67히 비쳤는데,  
 그린 상사 지리한 중 옥면(玉面)68인가 반겼더니  
 어이 한 뜬 구름이 광명을 가렸네.  
 어화 웬 일인고, 조물의 탓이로다.>69  
 어화 별수(別愁)70도 이 같은 별수로다.  
 언제나 구름 걸어 밝은 빛 다시 볼꼬?  
 송지문(宋之間)의 명하편(明河編)71을 길이 읊어 배회하니  
 한로(寒露) 상풍(霜楓)에 취한 술 다 깨였다.  
 금준(金樽)72을 다시 열고 낙엽을 깔고 안자,



일배(一杯) 일배(一杯) 부일배(復一杯) 몽롱하게 취하게 먹고  
 짧은 탄식 긴 한숨에 발을 밀어 일어서서  
 지향 없이 가는 길에 애련당(愛蓮塘)73에 들었던 말인가.  
 부용(芙蓉)74을 꺾어 들고 유정(有情)하게 도라 보니  
 수변(水邊)에 피는 꽃은 임이 나를 반기는 듯,  
 엽간(葉間)75에 뜨는 배76는 내 사정 알리는 듯,  
 양양(兩兩)77 나는 백구(白鷗)는 조용히 왕래하고  
 쌍쌍(雙雙) 나는 원앙(鴛鴦)은 녹수(綠水)에 부침(浮沈)78이다.  
 이 인생 가련하다. 미물만 못하다.  
 홀연히 다 떨치고 백마에 채를 던져  
 산이야 구름이야 정처 없이 가자 하니,  
 내 마음이 허황(虛荒)하여 갈 길이 아득하다.  
 허희(噓唏)79 탄식하고 초래80로 돌아들어 오니  
 간곳마다 보는 물색 이토록 심난하구나.  
 울밑에 피는 국화, 담 안에 붉은 단풍.  
 임과 함께 볼 양이면 경개(景概)롭다81 하련마는  
 도도(滔滔)82 심사(心思) 울울(鬱鬱)하여 도리어 수심(愁心)이라.  
 무정 세월 여류(如流)83하여 나날이 깊어간다.  
 가기(佳期)84는 절(節)85을 찾아 구추(九秋)86에 늦었어라.  
 상(床) 아래 우는 실솔(蟋蟀)87 너는 어찌 내가 미워  
 지난 달 새는 밤에 잠시도 그치지 않고  
 긴 소리 짧은 소리 경경(哽哽)88이 슬피 울어  
 다 썩고 남은 간장 어이 마저 썩히는고?  
 영계(-鷄)89가 더디 우니 밤조차 깊었어라.  
 상풍(霜風)90에 놀란 홍안(鴻雁)91 운소(雲宵)92에 홀로서서  
 웅웅(雝雝)한93 긴 소리로 짝을 불러 슬피 우니,  
 춘풍(春風) 화월(花月)94 저운 날에 두견성(杜鵑聲)95도 슬프거든  
 오동(梧桐) 추야(秋夜) 단장시(斷腸時)에 차마 어이 들을 수 있겠는가.  
 네 아무리 미물이나 사정은 나와 같구나.  
 일폭(一幅) 화전지(花箋紙)96에 세세(細細) 사정 그려 내어  
 명월(明月) 사창(紗窓) 요적한데 임 계신 곳 전해 주렴.  
 지리한 이 이별이 생각사록 끝이 없다.  
 인연 없어 못 보는가, 유정(有情)해야 그리워 하는가.  
 인연도 없지 않고 유정도 많건마는  
 일성(一城) 중에 함께 있어 어이 그리 못 보는고?  
 상수(湘水)97 명월 밝은 달에 초산(楚山) 운우(雲雨)98 섬길 적에  
 설진심중 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99는 황연(荒煙)100한 꿈이 일었도다.  
 무진 장회(無盡長懷)101 강잉(強仍)102하여 문을 열고 바라보니

무심한 뜬구름은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네.  
 우리 임 계신 곳을 저 구름은 아련마는  
 오면가면 두 사이에 무슨 악수(惡水) 막혔는데,  
 양처(兩處)가 막막하여 소식조차 끊긴단 말인가.  
 둘 데 없는 이내 심사 어디에 지접(止接)103할고?  
 벽상(壁上)에 걸린 오동 강잉(強仍)하여 내려놓고  
 봉구황(鳳求凰)104 한 곡조를 한 숨 쉬어 길게 타니  
 여음(餘音)105이 요조(搖調)106하여 원(怨)하는 듯, 한(恨)하는 듯  
 상여(相如)107의 옛 곡조는 의연(依然)히 있다마는  
 탁문군(卓文君)108의 맑은 지음(知音)109 호호이110 자취 없네.  
 상사곡(相思曲) 세 글자는 날을 위해 지었는가.  
 결연한 이 이별이 느낄 일도 하도 많다.  
 <전생(前生) 차생(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 나서  
 인간 백년 얼마기로 각재동서(各在東西) 그리는고?  
 황천(皇天) 후토(后土) 이 뜻 알아 이별 없기 원(願)이로다.  
 진시황(秦始皇) 분시서(焚詩書)할 때 어느 틈에 숨었다가  
 지금까지 누전하여 나의 일신 병이 되고  
 수양 매월(每月) 흙뻑 갈아 황모필(黃毛筆) 덩뻑 찍어  
 월매초죽(月梅草竹) 그려 낼 때 그리기는 옳건마는  
 명월(明月) 사창(紗窓) 앞에 앉아 나는 무엇 그리는고?  
 상사(想思) 두 글자는 나를 위해 그렸도다. >111  
 창해월(滄海月)112 영두운(嶺頭雲)113은 임 계신 듯 비치건만  
 심중(心中) 소회(所懷) 안전수114는 나 혼자뿐이로다.  
 갈수록 심난한데 해는 어이 수이 갈까.  
 잘 새는 깃을 찾아 무리무리 풀고들고  
 야색은 창망하여 먼 데 나무가 희미하다.  
 적막한 빈방 안에 울적이 홀로 안자  
 지난일 다 풀치고115 오는 시름 생각하니  
 산 밖에 산이 있고, 물 밖에 대해(大海)로다.  
 구의산(九疑山)116 구름 같이 바라보기 묘연하다.  
 장장 추야(長長秋夜) 긴긴 밤에 이리하여 어이할고?  
 아무쪼록 잠을 들어 꿈에나 보자 하니  
 원앙침(鴛鴦枕)117 서리치고 비취금(翡翠衾)118 냉락(冷落)119하다.  
 효월(曉月)120 잔등(殘燈)121에 잠 이루기 어려워라.  
 일병(一柄)122장촉(長燭)123 벼슬 삼아 전전불매(輾轉不寐)124 잠을 들어  
 금각령125 새벽달에 오경(五更)126인 줄 깨달았네.  
 이리하고 저리해도 아마도 원수로다.  
 고진감래(苦盡甘來)는 꼭 있건마는

명천(明天)이 도우시고 지신(地神)이 유애(有愛)하여  
남교(南郊)에 곧센 폴로 월로승(月老繩)127 다시 이어  
소상강(瀟湘江)128 어느 날에 고인(古人)을 다시 만나  
봄바람 가을 달에 그림같이 마주 안자  
이런 일 옛말 삼아 정회 중에 열어 두고  
유자 생녀(有子生女)129하여 한없이 즐기다가  
인심이 교자(驕恣)130하여 어디 누가 시비를 걸든  
추풍(秋風) 오호(五湖) 저문 날에 금범(錦帆)131을 높이 달고  
가다가 앉았다가 산 좋고 물 좋은데  
자좌오향(子坐午向)132 제법으로 수간(數間) 초옥(草屋) 지은 후에  
<집터를 불작시면 평생의 소원이라.  
경태릉묘 입수(入水)에 고두안산(高頭案山) 더욱 좋다.  
장송은 울울하니 울매어 무엇하며  
벽계(碧溪)는 유유하이 우물 파서 무엇하리.  
감천(甘泉)에 토후(土厚)로다 농업을 하여보세.>133  
석전(石田)134을 깊이 갈고 초목(草木)을 먹을망정  
백년이 다 지나도록 떠나 살지 말자 하였더니,  
<다시금 생각하니 쓸데없는 한별일세.  
이회 별한(離懷別恨) 이 같은데 단장 초호뿐이로다.  
악수 완연 만나 보아 작조진 정하고지고  
임 이별한 때 나는 어지 못 죽었노.  
대천 바다 깊은 물에 풍덩실 빠지련만,  
지금까지 살았는데, 부모 정든 임 만날까?  
창천도 미워하고 조물의 시기로다.  
성음(聲音)이 귀에 쟁쟁 불사이자사(不思而自思)하며  
태도가 눈에 암암 욕망이난망(欲忘而難忘)이라.  
想思의 중한 병을 어찌하면 고쳐 낼꼬?  
신농씨(神農氏) 갱생(更生)하고 편작(扁鵲)이 부생(復生)한들  
상사의 깊은 병을 어이하야 고칠손가.>135  
상사(想思)로 언한136 몸이 상 위에 잠간 누어  
죽은 듯이 잠을 들어 호접(胡蝶)137이 나를 몰아  
그리 든 우리 임을 꿈 가운데 잠간 만나  
비희(悲喜)가 교집(交集)138하여 별회 사정 다 못하여  
수가(誰家) 옥적성(玉笛聲)139에 추풍에 섞여 불어  
처량한 그 소리로 잠든 날을 깨우느냐.  
두어라 이한(離恨) 별수(別愁)는 후일 다시 불가 하노라.

[각주]

- 1) 금성(金聲) : 쇠에서 나는 소리.
- 2) 고침단금(孤枕單衾) : 외로운 베개와 홀이불. 젊은 여자가 홀로 쓸쓸히 자는 잠자리를 이르는 말.
- 3) 상사몽(相思夢) : 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꿈.
- 4) 훌쳐 : 쓸리다.
- 5) <> : 원문에 빠진 부분은 이후 김기동·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20권, (서문당, 1984)에  
서 보충함.
- 6) 심사(心思)도 창연(愴然) :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다.
- 7) 물색(物色)도 유감(有感) : 느끼는 바가 있음.
- 8) 정수(庭樹) : 마당에 있는 나무.
- 9) 이한(離恨) : 이별의 한.
- 10) 별루(別淚) : 이별할 때 흘리는 눈물.
- 11) 잔유남교(殘柳南郊) : 잎이 진 버드나무가 있는 남쪽 교외.
- 12) 춘앵(春鶯) : 앵무새.
- 13) 이귀(已歸) : 이미 돌아가고.
- 14) 소월동정(素月洞庭) : 하얗게 달이 비친 동산.
- 15) 추원(秋猿) : 원숭이. 잔나비.
- 16)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 : 옛날 일.
- 17) 사창(紗窓) : 비단으로 바른 창. 연인이 사용하는 방의 창.
- 18) 요적(寥寂) : 고요하고 적적하다.
- 19) 흠흠(洽洽)히 : 함함.
- 20) 사어시(私語時) : 달이 밝은 한 밤중에 사사로이 말을 건널 때. 이백의 <장한가(長恨歌)> 중 ‘夜半  
無人私語時’를 에서 유래했다.
- 21) 단봉(丹峰) : 모란봉.
- 22) 패수(溟水) : 대동강의 옛 이름.
- 23) 이의(異意) : 다른 뜻이 없음. 생각조차 하지 않음.
- 24) 양신(良辰) : 좋은 계절(가절(佳節)), 좋은 시기(가시(佳時))
- 25) 다마(多磨) : 굵은 일이 많음.
- 26) 지이인하(地邇人遐) : 땅은 가깝고 사람은 멀.
- 27) 화총(花叢) : 꽃떨기.
- 28) 웅봉(雄蜂) : 수벌
- 29) 자접(雌蝶) : 암나비
- 30) 진장(秦帳) :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의 장막.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이 진(秦)나라의 소양왕  
에게 붙잡히자 개처럼 훔치기를 잘하는 식객(食客)과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재주로 무사히 탈  
출했다는 고사가 있음. 계명구도(鷄鳴狗盜).
- 31) 호구(狐裘) :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가죽을 여러 장 모아 이어서 만든 갓옷. • 고관대작(高官大爵)  
을 상징함.
- 32) 도적(盜賊)할 길 바이없고, : 어찌할 도리나 방법이 전혀 없다.

- 33) 금룡(禁籠) : 새장
- 34) 묘연(杳然) : 아득하고 멀. 그윽하고 멀어서 눈에 아물아물함. 소식이나 행방 따위를 알 길이 없다.
- 35) 작교(鵲橋) : 오작교
- 36)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그런 슬픔과 한.
- 37) 끝끝이 느껴워라 : 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다.
- 38) 별회(別懷) : 이별할 때에 품은 슬픈 회포.
- 39) 수성(愁聲) : 근심스러운 소리
- 40) 관회(寬懷) : 마음에 지닌 회포를 품.
- 41) 적로(滴露) : 방울방울 맺혔거나 떨어지는 이슬.
- 42) 을밀대(乙密臺) : 평양(平壤) 금수산(錦繡山)에 있는 고구려 때 지은 누정(樓亭).
- 43) 예 : 옛날
- 44) 소연(蕭然) : 호젓하고 쓸쓸하다.
- 45) 능라도(綾羅島) : 평양 대동강에 있는 섬.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기성 팔경(箕城八景)의 하나로 꼽힘.
- 46) 쇠(衰) :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해지다.
- 47) 성긴 : 물건의 사이가 듽성듬성 뜨다.
- 48) 금수봉(錦繡峰) : 평양에 있는 산 이름. 을밀대가 이곳에 있음.
- 49) 상엽(霜葉) : 서리 맞은 잎
- 50) 표불(漂拂) : 떨어져 날림.
- 51) 용산(龍山) : 평양 대성산. 용산만취(龍山晚翠)는 평양(平壤) 팔경(八景)의 하나.
- 52) 창울(悵鬱) : 몹시 서운하고 울적하다.
- 53) 마탄(馬灘) : 대동강 여울. 마탄춘장(馬灘春張)은 평양 팔경의 하나.
- 54) 탕양(蕩漾) : 물결이 넘실거리며 움직임.
- 55) 송객정(送客亭) : 대동강 지류. 보통송객(普通送客)은 평양 팔경의 하나.
- 56) <> : 원문에 빠진 부분. 김기동·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권 20권, (서문당, 1984)에서 보충함
- 57) 약수(弱水)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 58) 수이수이 : 쉽게쉽게
- 59) 풀고지고 : 풀고 또 풀고
- 60) 금란(金欄) : 비단(緋緞)의 한 가지. 황금 실을 섞어 호화찬란하게 짜고 명주실로 봉황이나 꽃무늬를 냄.
- 61) 단우(丹愚) : 자신의 성의(誠意)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 62) 종경(鐘磬) : 종과 경소리.
- 63) 초혜(草鞋) : 짚신.
- 64) 석거이 : ‘삼가’의 잘못된 듯.
- 65) 영명사(永明寺) : 평양 모란봉 언덕에 있는 사찰. 영명심승(永明尋僧)은 평양 팔경의 하나.
- 66) 부벽루(浮壁樓) : 평양 모란대(牡丹臺) 밑 청류벽(清流壁) 위에 있는 누각. 부벽완월(浮壁翫月)은 평양 팔경의 하나.

- 67) 교교(皎皎) : 달이 썩 맑고 밝음. 썩 희고 깨끗함. 매우 조용함.
- 68) 옥면(玉面) : 옥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얼굴. 남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 69) <> : 원문에 빠진 부분. 김기동·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20권, (서문당, 1984)에서 보충함
- 70) 별수(別愁) : 특별한 근심.
- 71) 명하편(明河編) : 중국 당나라 시인 송지문(宋之問)도 <명하편(明河篇)>에서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놓은 오작교(烏鵲橋)에 관한 고사를 읊었음. (七月七日 鵲首兮故皆髡 相傳以爲是河鼓與織女會於漢東 役鵲爲梁以渡 故毛皆脫去)
- 72) 금준(金樽) : 금으로 만든 술통. 화려하게 만든 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3) 애련당(愛蓮塘) : 평양 대동문에서 종로로 통하는 길 중간복판에 있었던 연못. 연당청우(蓮塘聽雨)는 평양 팔경의 하나.
- 74) 부용(芙蓉) : 연꽃.
- 75) 엽간(葉間) : 낙엽이 떨어진 사이.
- 76) 배 : ‘듣는 비’ 곧 ‘떨어지는 비’의 잘못.
- 77) 양양(兩兩) : 짝지어 나는 모양.
- 78) 부침(浮沈) : 물 위에 떠올랐다 물속에 잠겼다 함.
- 79) 허희(嘘唏) : 한숨을 지음. 허허. 감탄사.
- 80) 초래 : 초려(草廬)임.
- 81) 경개(景概)롭다 : 경치가 빼어나다.
- 82) 도도(滔滔) : 두루 돌아다님. 어지러워함. 탄식함.
- 83) 여류(如流) : 흐르는 물.
- 84) 가기(佳期) : 좋은 계절. 사랑을 처음 맺게 되는 좋은 시기.
- 85) 절(節) : 시절.
- 86) 구추(九秋) : 가을철. 음력 9월.
- 87) 실솔(蟋蟀) : 귀뚜라미
- 88) 경경(哽哽) : 목이 메임.
- 89) 영계(一鷄) : 어린 닭. 원래 촌계(村鷄)임.
- 90) 상풍(霜風) : 서리가 내릴 때 부는 찬바람.
- 91) 홍안(鴻雁) : 기러기.
- 92) 운소(雲宵) : 구름 낀 높은 하늘.
- 93) 옹옹(雝雝)한 : 화평하고 즐거움.
- 94) 화월(花月) : 꽃과 달. 꽃이 피고 달이 밝은 그윽한 정취.
- 95) 두견성(杜鵑聲) : 꾀꼬리 우는 소리.
- 96) 화전지(花箋紙) : 편지지.
- 97) 상수(湘水) : 동정호로 드는 물줄기.
- 98) 운우(雲雨) : 초(楚)의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서 놀 때, 어떤 부인이 ‘자기는 무산(巫山) 남쪽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모시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꿈을 꾸고는 깨어 보니 운우(雲雨)가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조운모우(朝雲暮雨).

- 99) 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 : 마음속 술한 사연 모두 털어 놓음. 한 여인의 한 많은 사연을 듣고 지었다는 백거이(白居易)의 비파행(琵琶行)의 한 구절.
- 100) 황연(荒煙) : 인기척이 없음.
- 101) 장회(無盡長懷) : 끝이 없는 긴 회포.
- 102) 강잉(強仍) : 억지로 참음.
- 103) 지접(止接) : 몸을 붙이어 의지함.
- 104) 봉구황(鳳求凰) : 한나라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탁문군(卓文君)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읊은 노래.
- 105) 여음(餘音) : 여운(餘韻).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아직 남아 있는 듯한 음향.
- 106) 요조(搖調) : 흔들림.
- 107) 상여(相如) : 사마상여(司馬相如).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B.C.179~B.C.117).
- 108) 탁문군(卓文君) : 탁문군(卓文君). 중국 서한(西漢) 대 촉(蜀)의 부호(富豪) 탁왕손(卓王孫)의 딸로 사마상여(司馬相如)와의 사랑 이야기가 유명함. 가도사벽(家徒四壁).
- 109) 지음(知音) : 음(音)을 앎.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한 벗을 이르는 말. 백아(伯牙)가 타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악상(樂想)을 일일이 알아맞췄다는 종자기(鍾子期)와의 옛 고사에서 유래함.
- 110) 호호이 : 어허(?), 감탄사.
- 111) <> : 원문에 빠진 부분. 김기동 · 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20권, (서문당, 1984.)에서 보충함
- 112) 창해월(滄海月) : 푸른 바다 위에 뜬 달.
- 113) 영두운(嶺頭雲) : 고갯마루에 걸린 구름.
- 114) 안전수 : 무한정수(無限情愁)의 잘못.
- 115) 풀치고 : 맺혔던 생각을 돌려 너그럽게 용서함.
- 116) 구의산(九疑山) : 중국 호남성 영원현(永遠縣)에 있는 산. 순임금이 이 산에서 죽었는데, 두 왕비(아황(娥皇)과 여영(女英))가 애타게 순 임금을 찾아 헤맸다고 함.
- 117) 원앙침(鴛鴦枕) : 원앙새를 수놓은 베개.
- 118) 비취금(翡翠衾) : 비취를 수 놓은 이불.
- 119) 냉락(冷落) : 외롭고 쓸쓸함.
- 120) 효월(曉月) : 새벽달.
- 121) 잔등(殘燈) : 깊은 밤의 꺼질락 말락 하는 희미한 등불.
- 122) 일병(一柄) : 한 자루.
- 123) 장촉(長燭) : 긴 촛불.
- 124) 전전불매(輾轉不寐)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125) 금각령 : 금강령. 집 앞 고개인 듯.
- 126) 오경(五更) : 새벽. 인시. 3~5시.
- 127) 월로승(月老繩) : 부부 인연의 끈. 월하노인(月下老人).
- 128) 소상강(瀟湘江) : 중국 후난 성(湖南省) 동팅호(洞庭湖) 남쪽에 있는 소수(瀟水)와 상강(湘江).
- 129) 유자 생녀(有子生女) : 아들 낳고 딸을 낳음.
- 130) 교자(驕恣) : 교만하고 방자함.

131) 금범(錦帆) : 비단으로 만든 돛.

132) 자좌오향(子坐午向) : 뒷자리나 집터 따위의 좋은 자리. 정북(正北) 방향을 등지고 정남향으로 앉은 자리.

133) <> : 원문에 빠진 부분. 김기동 · 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20권, (서문당, 1984.)에서 보충함

134) 석전(石田) : 돌이 많은 밭.

135) <> : 원문에 빠진 부분. 김기동 · 전규태 편, 『한국고전문학 100』 20권, (서문당, 1984.)에서 보충함.

136) 언한 : ‘곤한’의 잘못인 듯.

137) 호접(胡蝶) : 호랑나비.

138) 교집(交集) : 이런저런 생각이 뒤얽히어 서림.

139) 옥적성(玉笛聲) : 누군가의 집에서 부는 옥피리 소리.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